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선교소식 2024 3 6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선교의 길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평강과 활기찬 삶이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은퇴후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을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합니다. “나를 만날 날이 하루 하루 가까와 오는데 흥분되지 아니하니?”.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새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르볼 프론도서 교회 청소년 선교 봉사 활동

지난 12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교회에서 5 시간 정도 떨어진 원주민 마을(뿌레빠차족) 까빠꾸아로에 교회 설립후 처음으로 학생들의 첫 선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부 18 명이 참가하여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수돗물도 없고 화장실도 완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우도전적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90 여명에 아이들이 모였는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이 찬양을 배우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수고를 잊을수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 학생부 선교 봉사 활동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 새해 기도 모임

1 월 8-26 일 (월-금) 3 주 동안 연초 기도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약 40-50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미디어와 특정 음식을 금하는 금식기도에도 참여했습니다. 각자 새해의 기도제목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멕시코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교우들과 직장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학생들이 예년보다 많이 참석해 더욱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어린이 사역

올해도 변함 없이 연말연시 어린이 사역을 두 마을에서 가졌습니다. 크루시따에서 (170 명) 그리고 비스타빌야 (130 명)에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어주고 그 후 매주 토요일 어린이 성경공부 과정을 8 주간 이어갑니다. 잘 마친 아이들에게는 수료증도 줍니다. 현재 매주 각각 평균 30 명과 20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고 교사들의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사진 비스타빌야, 아래사진 크루시따)

4. 선교센터 건축 지원팀 방문사역

시카고 갈보리장로교회에서 단기선교봉사팀 17 명이 (2 월 24-29 일) 방문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요일 어린이 성경클럽 지역을 돌아보며 기도 사역을 가졌습니다. 또한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페인트 칠 사역등의 큰 수고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1. 권정희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신장 결석으로 병원 입원 수술 (2 월 2-3)후 회복됨
2. 6 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갈렙과 조셉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갈렙은 졸업 후 취직하고,조셉은 PA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멕시코 선교사 수련회 참석 예정 (3 월 11-13 일) 4. 세례식 예정 (4 월 14 일)